

## 01. 미술융합교육이란?

새로운 기술의 등장, 기술의 패러다임변화, 융합기술의 등장, 사회의 변화는 예측불허입니다. 따라서 21세기를 주도해나갈 미래 사회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창의-융합형 인재라는 말은 너무나 쉽게 쓰지만 실제로 그 교육이 '어떻게 학교수업으로 가능할까?'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국가가 모두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융합이라고 하면 전문성이 먼저 떠오릅니다. 전문성과 다양한 연계성을 말하는 융합을 '어떻게 학교수업현장에 그것도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는 엄청난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과 예술이 융합된 STEAM 교육도 몇 명 소수만 알던 범위에서 점차 일반화되면서 확장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융합이라는 말은 실제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말인지도 모릅니다. 교육은 인간의 삶을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돌아보면 그 자체가 융합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햇살을 보고 좋아하고 여름날 담장 밑에 피어난 분홍색 채송화 한 송이에 감탄을 합니다. 가을이 올 무렵부터 맑아지는 하늘과 조화로운 구름에 폰 사진에 저장하느라 여념이 없지요. 휴대폰이 일반화된 지금 저녁 무렵의 하늘 사진을 찍어서 교사에게 보여주는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아이들에 열광하는 청소년들은 음악과 춤에 심취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령에 따라 좋아하는 음악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감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집에는 좋아하는 그림 몇 점은 진품이 아니어도 벽에 걸려 있습니다.

디자인과 색감이 지금 딱 적절하게 맞는 전자제품들은 불티나게 팔립니다. 자동차 선전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성능을 이야기하는 선전은 이미 옛날 것이지요. 품격을 갖춘 디자인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광고를 합니다. 건축물은 어떻습니까? 실용성만을 강조하던 옛날 아파트식의 똑같은 건물은 요즘 새로 짓는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대의 건축물이나 미래건물디자인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납니다. 고대나 중세의 건축물은 미술작품 그 자체입니다. 건물과 미술의 훌륭한 융합입니다.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옛 교육으로의 회귀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의 옛날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의 선비문화는 세계적인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융합교육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詩), 서(書), 예(禮), 악(樂)을 고루 갖추고 교육에 힘썼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선비는 선비춤에 능했고, 거문고나 대금 등 악기 다루기에 능했으며, 시·서·화에 능했습니다. 지식인들은 그렇게 인간의 모든 부분을 함께 공부하고 가르쳤습

니다. 그렇게 본다면 조선시대까지의 우리 문화는 창익의 바탕이 융합교육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 옷감, 색, 문화재 등을 볼 때 미술적 요소가 빠지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융합교육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인간본래의 교육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라 생각합니다. 기계형 인간을 기르기 위한 주입식교육은 주지 교과와 비주지교과로 나뉘었고 미술이나 음악을 끼워 넣기 식 교육과목으로 편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 수업 때 받은 미술이나 음악을 바탕으로 전공을 하기도 하고 취미 생활을 하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향유합니다.

예술과 결합하는 교육은 융합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야 할 일반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연을 보고 감탄하는 자연스러운 발로가 미술을 탄생시켰듯이 신의 작품인 자연을 감상하고, 인간의 작품인 미술과 음악이 가미된 모든 것을 감상하여 삶의 일부로 만드는 것이 바로 융합교육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어떤 교육을 통해서 하는 특별한 과정이 아니라 꾸준히 일상생활과 병행하는 학교수업, 과목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연결 수업 등이 바로 융합교육의 기초 작업이 됩니다.

개념의 정의, 개념의 발견이 되면 개념이 연결이 되고, 개념을 변형시키거나 파괴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가는 기본 작업입니다. 다행히 다른 과목과는 달리 미술과목은 시각화된 것이라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성취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쉽게 본다면 다른 과목에 정리하는 작업에 비주얼씽킹이나 마인드맵, 버블맵등을 사용한 것이나, 전지작업을 통해 협동학습을 하는 것도 전부 미술작업입니다. 이 차시에서는 미술융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교사는 수업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미술융합수업디자인을 할 것인지를 실제 사례를 가지고 다루어 보도록 합니다.

## 02. 미술융합교육 시작하기

### 가. 연결하는 기초융합

미술수업에서 시작단계에는 아이들에게 미술적 요소를 익히게 하는 수업에서 점차 확장된 수업으로 전개해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변 사물들과 연결을 하는 기초융합을 시도하는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미술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시작하는 것일까? 를 자연스럽게 익히면서 확장되도록 아이들에게 이론보다는 실재를 통해서 경험하도록 시도를 했습니다.

먼저 책을 읽어주고 그림을 감상합니다.

▶도입: 책 읽어 주기

-점 선 면으로 보는 그림(점에 대한 부분 읽어 주기)

(※아이들이 그림에 집중하고 생각 할 수 있도록~)

점.점.점. 점 하나가 그림이 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점 점 점이 만나더니

또, 그림이 되었습니다.

점이 그림을 만나러 굴러갑니다.

점이 그림 속을 가득 메웁니다.

그러자, 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그림이 탄생했습니다.

※ 본문에 있는 그림책을 넘겨가며 지문을 읽어 갑니다. 아이들이 그림에 집중하도록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읽을 수 있도록 합니다.

#### ■ 활동1 : 주제도서 속 개념 따라가기

-주제도서에서 P4~11까지 책에 나온 개념대로 활동해보도록 했습니다.

1. 점은 무엇일까? (단순히 공간의 위치를 가리키는 것)

2. 두 점을 이으면 어떻게 될까?(직선이 되는데 두 점을 잇는 가장 짧은 거리)

3.선은 무엇일까?(점이 모이면 선이 된다)

4.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선(태양광선)

(태양이 내뿜는 광선은 태양 가운데서 시작해서 우주로 쭉 뻗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광선은 시작점은 보이지만 어디서 끝나는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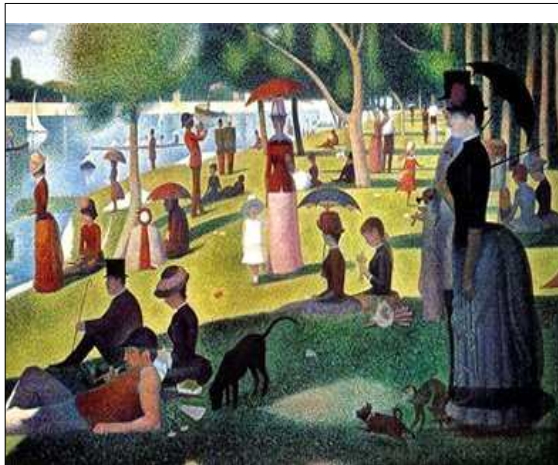
태양광선에 대한 이야기가 깊어지면 아마 우주의 이야기까지 아이들은 신나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5.가로로 나란히 뻗은 선(정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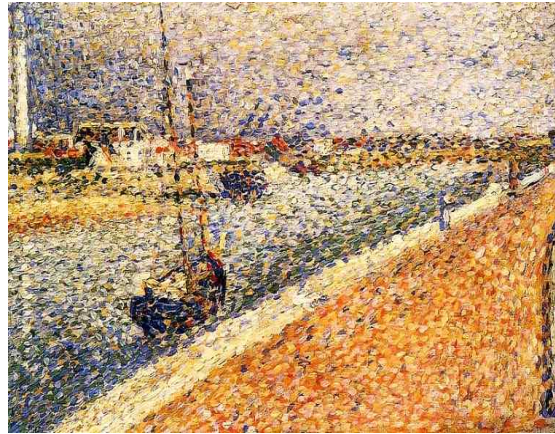
(가로선은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가로질러 뻗는 선. 나란히 옆으로 서 있는 점들을 연결하면 가로 선이 생긴다)

- 선과 점의 개념을 말해보면서 점으로만 그림을 그린 쇠라의 작품에 대해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 점으로 그린 화가 조르주 쇠라의 작품 <그랑자뜨 섬의 일요일 오후>와 <여름>을 감상합니다.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쇠라 여름 < >

## ■ 활동2 : 실험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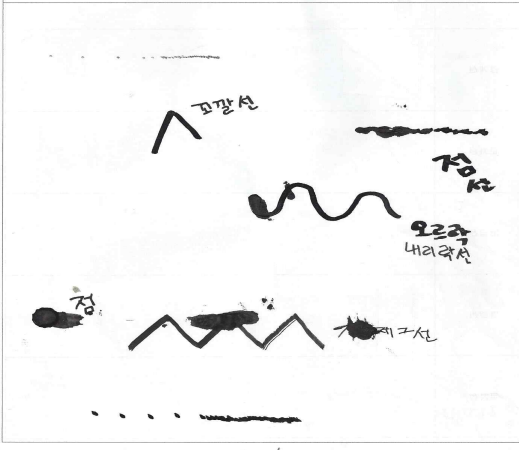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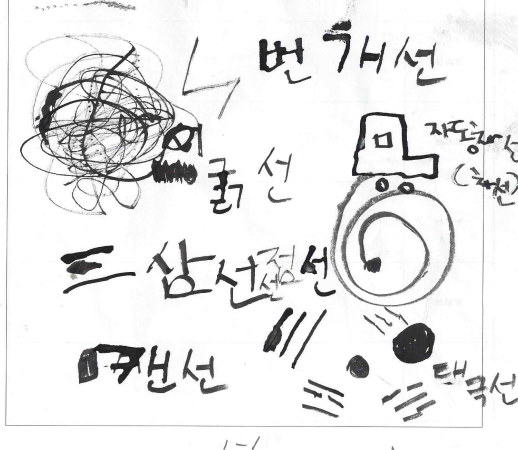
- < 점 선 면으로 보는 그림 > 중 선에 대한 부분 동화처럼 읽어주기  
(※ 아이들이 그림만 보고 집중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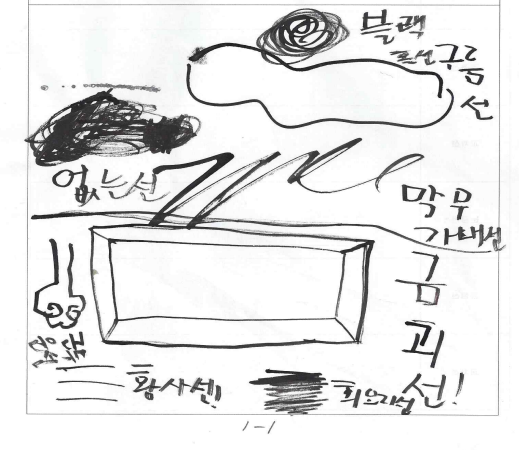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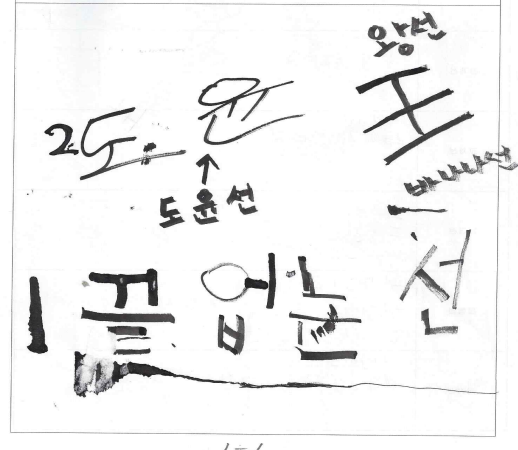
TEXT1-1. 다양한 재료로 선 그리고 이름 짓기

(예: 똑바른 선, 구부러진 선, 지그재그선, 꼬불꼬불한 선, 모양선)

- 나뭇가지나 나무젓가락으로 다양한 선 표현하기
- 이쑤시개나 손을 이용해 굵고 얇은 선 표현해 보기

1. 점을 찍어 보자
2. 점과 점을 연결하여 선을 그려보자
3. 선을 그려보고 이름을 지어보자

<p style="text-align: right;">2016.1.8 <b>무예음</b></p> <div> 1.점을 찍어 보자  2.점과 점을 연결하여 선을 그려보자.  3.선을 그려보고 선의 이름을 지어보자. </div> 	<p style="text-align: right;">2016.1.8. <b>선</b></p> <div> 1.점을 찍어 보자  2.점과 점을 연결하여 선을 그려보자.  3.선을 그려보고 선의 이름을 지어보자. </div> 
<p>고깔선, 점선, 오르락 내리락선, 지그재그선</p>	<p>번개선, 굴선, 칸선, 자동차선, 태극선</p>

<p style="text-align: right;">2016.1.8</p> <div> 1.점을 찍어 보자  2.점과 점을 연결하여 선을 그려보자.  3.선을 그려보고 선의 이름을 지어보자. </div> 	<p style="text-align: right;">2016.1.8</p> <div> 1.점을 찍어 보자  2.점과 점을 연결하여 선을 그려보자.  3.선을 그려보고 선의 이름을 지어보자. </div> 
<p>블랙구름 선, 없는 선, 막무가내 선, 금괴선, 황사선, 근두운 선, 회오리선</p>	<p>끝없는 선, 왕선, 도운선, 바나나선</p>

아이들의 표현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굵은 선이 아니라 굵선이라고 하더군요. 이미 알고 있다고 간과할 것이 아니라 점과 점을 이어서 선을 만들어보고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점과 선의 특징을 파악합니다. 곡선으로 연결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는 선들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쉬운 것부터 익히기 이것이 바로 미술교육에서도 기본이고 융합교육에서도 기본입니다. 선을 주인공으로 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 내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 TEXT1-2.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선 알아보기

주변에 있는 선들에 대해 조사를 해 봅니다.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수직선, 경계선, 교차선, 눈금선, 평행선 등에 대해서 모두 자기가 이해한 만큼 자기만의 언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과 글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선의 모양과 종류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이 될 것입니다. 메타인지가 작동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선들을 알아보고 조사해 보자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선들을 알아보고 조사해 보자	
수직선	수직선이란? 수직선은 위아래로 크게 뻗은 선이다. 각각의 점들이 길게 아래로 뚫뚫 뚫어서있으면 수직선!	수직선	수직선: 위아래로 크게 뻗은 선.
경계선	경계선이란? 무언가를 둘로 나눌 때 사용하는 선.	경계선	경계선: 국한선을 낼 때 사용하는 선.
교차선	교차선이란? 선들이 교차하는 것	교차선	교차선: 선들이 교차하는 것
눈금선	눈금선이란? 눈금선은 일정한 간격대로 놓여있는 선	눈금선	눈금선: 눈금선을 놓을 때 간격대로 놓여있는 선
평행선	평행선이란? 평행선은 늘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서 한 방향으로만 가는 선	평행선	평행선: 눈금선과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서 한 방향으로만 가는 선
지평선	지평선이란?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는 선	지평선	지평선: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는 선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선들을 알아보고 조사해 보자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선들을 알아보고 조사해 보자	
수직선	끝이 있는 선이다.	수직선	
경계선	가장자리나 한번 만나고, 자기가 가던 방향으로 가는 선	경계선	대한민국과 일본을 나누는 선
교차선	한번 만나고, 자기가 가던 방향으로 가는 선	교차선	선들이 서로 교차하는 것
눈금선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있는 선	눈금선	자세히 있는 눈금이 눈금선
평행선	아주 멀리 가는 똑같은 간격을 유지하고 갈 때	평행선	죽어 도둑만 타는 선
교차선	한번 만나고 계속 움직이는 같은 선	교차선	



### TEXT1-3. 점, 선 이용하여 주제가 있는 그림 그리기

이번에는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그 선들을 이용해서 주제가 있는 그림을 그리도록 해 봅니다. 그리고 짝끼리 서로 자신의 그림에 대해 설명해 주도록 합니다. 이때 가능하면 어떤 점, 어떤 선을 사용하여 무엇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말하게 하면 더 좋습니다.



#### TEXT1-4. 선으로 표현된 작품 감상하기

선으로만 이루어진 작품을 감상해 봅니다. 홍선 대원군의 난초 그림, 이정익의 대나무, 몬드리안의 추상화 회색나무의 공통점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선이 주는 느낌, 선의 중요성 등에 대해 알아가며 비교 감상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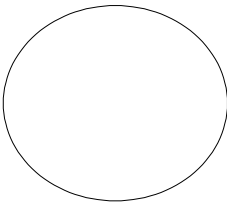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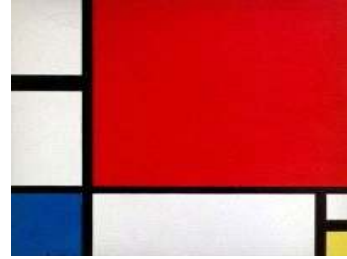


#### ■ 활동3 : 도형찾기

##### TEXT1-1. 선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도형 찾기

선이 모이면 도형이 됩니다. 선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도형들을 찾아보는 활동도 재미있습니다. 각 도형으로만 이루어진 작품들을 찾아서 질문을 만들거나 서로 이야기를 해 봅니다.





- '공은 왜 둥글까?'에 대한 의문은 '지구는 왜 둥글까?', '별은 왜 둥글까?'로 확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자는 왜 둥글까? 에 대해 질문을 만들고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집니다. 여기서 발상의 전환은 다른 모양의 피자도 만들 수 있겠지요.

## TEXT1-2. 점과 선을 이용해서 다양한 삼각형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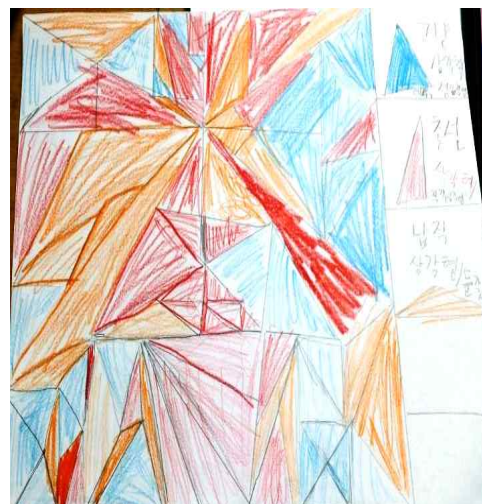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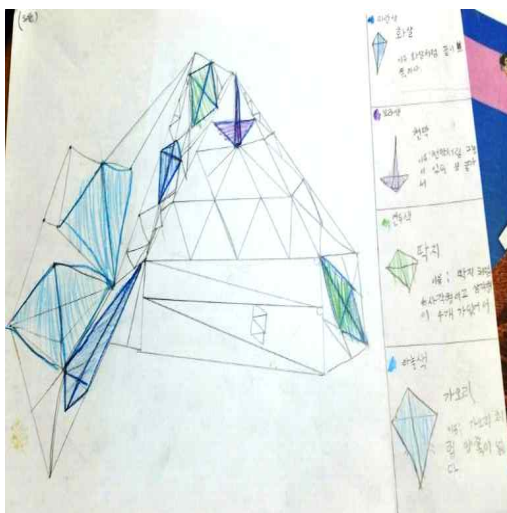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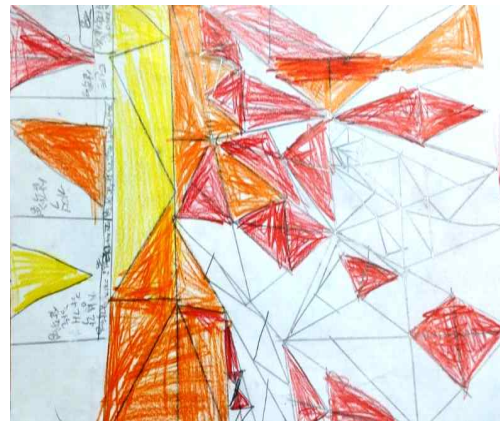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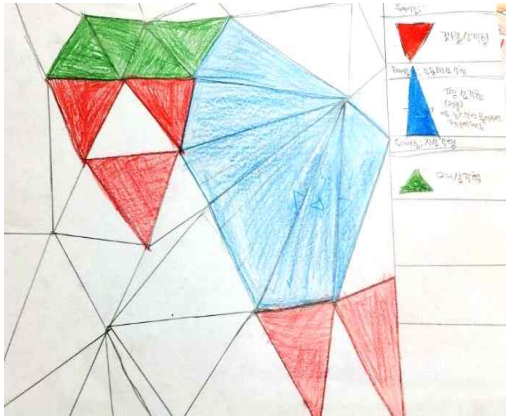
### - 방법

- ① 종이 위에 세 점을 찍는다.
- ② 세 점을 이어 삼각형을 만든다.
- ③ 삼각형의 꼭지점에서 선과 선을 이어 다양한 삼각형을 만든다.(선의 길이를 다양하게)
- ④ 삼각형을 분류하여 이름을 지어준다.

### - 활동을 통해 알아야 할 점

점이 선이 되고 선과 선이 만나서 면이 되는 원리를 안다.

삼각형의 다양한 이름을 안다.



※ 아이들이 그린 삼각형에서 자신이 그린 삼각형의 모양을 보고 이름을 다양하게 지었는데

예를 들어 직각삼각형은 기역삼각형 또는 깃발삼각형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정삼각형 같은 경우 가운데 선을 긋고 텐트삼각형이라는 이름을 짓고 둔각삼각형은 납작삼각형 이라고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 TEXT1-3. 삼각형 세상 짝 토론 하기

- 주제도서 속에 나온 다양한 삼각형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조사하여 말해 보는 시간으로 합니다. 이 활동은 주변에 둘러봄으로써 주변의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며 또한 관찰력도 깊어지게 됩니다.

#### TEXT1-4. 삼각형의 변신

- 면과 면이 만나 입체가 되는 과정 표현하기

- 방법

- ① 어떤 조형물을 만들지 설계를 한다.
- ② 재료를 사용해서 조형물을 만든다.
- ③ 자신의 만든 작품이 무엇을 나타내고 어디에 사용될 수 있는지 설명한다.

- 실험을 통해 알아볼 점

점 선 면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음을 발견하고 감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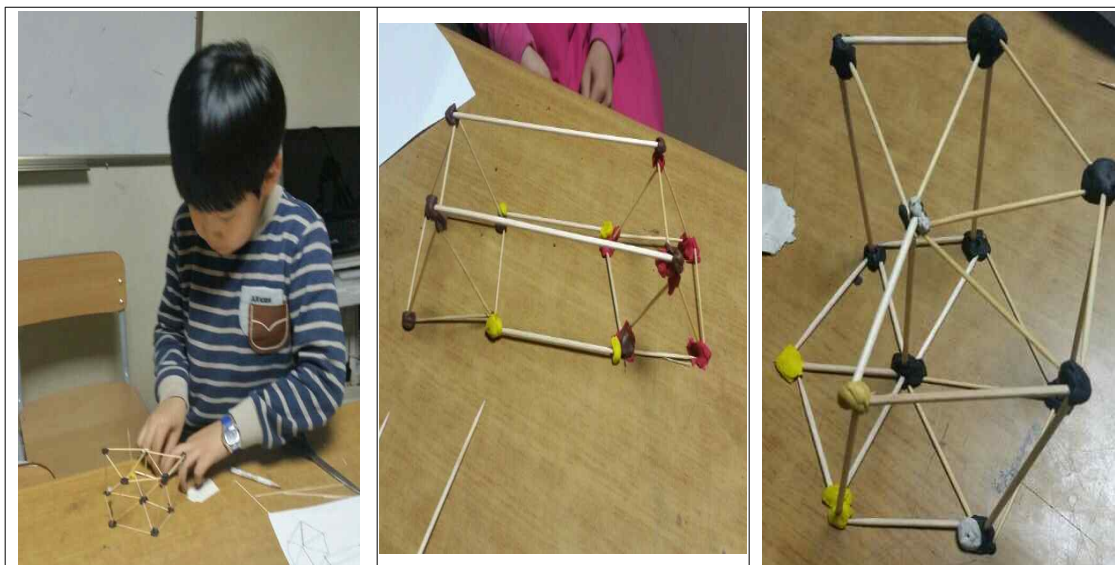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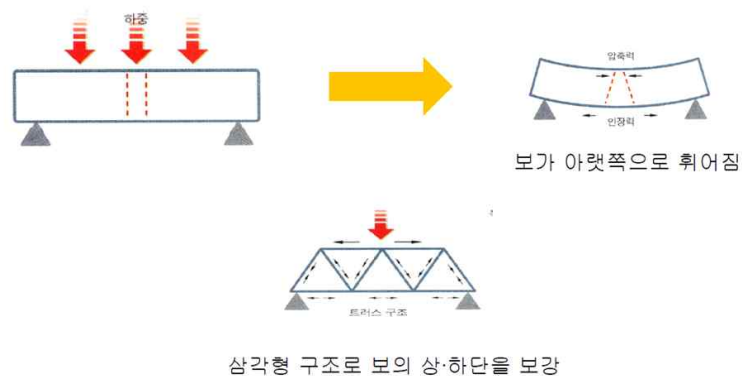




사진 자료를 보고 찾을 수 있는 모든 삼각형을 찾아서 그 원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위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은 사각형보다 삼각형이 더 안정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각형 사이에 대각선을 넣어서 삼각형을 만드는 일이 자연스러워지지요.



트러스는 가장 강하고 안정적인 구조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점과 선 그리고 선으로 이루어진 면을 가지고 그림으로도 그려보고 직접 만들어 보면서 원의 성질, 사각형의 성질, 그리고 삼각형의 성질을 파악해 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인류가 만든 가장 오래된 건축물인데 아직 남아 있을 수 있는 이유도 탐구할 수가 있겠지요. 에펠탑이나 교각 구조에서도 트러스구

조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물건들이나 주변의 사물들을 통해 그 원리까지 찾을 수 있으면 훨씬 더 훌륭한 형태의 미술교육이 될 것입니다.

### 03. 미술융합교육 디자인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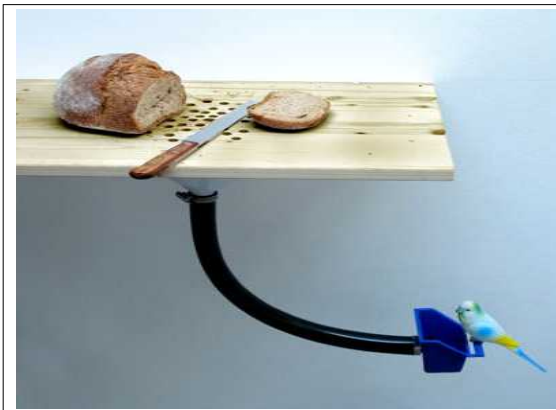
고구려시대의 벽화에 남아있는 그림들입니다. 이 자료는 역사와 융합하기에 좋습니다. 이 그림들에 대해 질문을 만들어 보면 고구려인들의 생활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말을 자유자재로 타면서 말을 타고 뒤를 돌아보는 활쏘기, 이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인가는 질문을 만들어보면서 자세를 잡고 이야기를 해 보아야 합니다. 고구려인들의 기상, 기개 등이 잘 나타나 있으므로 말을 잘 쓰는 추모대왕인 주몽의 고사가 들어있는 고구려건국신화를 함께 공부해보면 좋습니다. 또한 중국대륙을 호령했던 광개토대왕의 이야기와 광개토대왕릉비에 어떤 이야기들이 아들인 장수왕이 썼을 지를 생각하면서 각자 적어봅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시조 추모대왕(주몽)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역사와 융합하기는 어떤 역사적 유물과도 가능합니다.

에코디자인- 환경과 융합한 디자인  
사회와 수업과 잘 융합이 되는 과정입니다. 환경을 다루는 사회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갑니다만 마땅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 한사람 한사람이 함께 고민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환경을 위한 디자인을 아이들과 질문을 만들고 이야기를 해보면 다양한 환경보호를 할 수 있는 상상력을 길러줄 수가 있습니다.  
사진은 빵으로 만든 컵입니다. 1회용 컵을 충분히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빵 부스러기를 새가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도마 디자인입니다. 이 수업도 아이들이 매우 좋아했습니다.



자신의 재능으로 소외된 이웃나라를 돕자.

아프리카에는 물이 부족합니다. 멀리 1~2시간은 걸어가야 물을 길 수 있는데 양동으로 길어오면 그나마 물이 다 쏟아지겠지요. 그래서 개발한 것이 Q-드럼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이디어를 낳습니다.

이 자료는 미술과에서의 디자인과 과학수업에서 플라스틱 강도실험이나 원구조의 마찰력, 그리고 도덕이나 사회과목의 타인에 대한 배려등과 융합수업이 될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와카워터라는 이름만 주고 모든 자료를 찾아보는 시간으로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건축가가 아주 간단한 원리로 아프리카 사람들을 돕는 기구 같은 것을 발명한 것입니다. 이 수업은 아이들끼리 이슬이 만들어지는 원리, 온도 등을 찾아내었고 하룻밤사이에 얼마나 이슬이 모였는지 유추하기도 했습니다.



물이 부족한 아프리카를 돕는 또 한 사람의 건축가가 이슬의 원리를 이용해 물을 맑은 물을 모으는 와카워터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으로 사람들을 돕는 디자인 만들기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업입니다. 이웃나라를 알아가는 공부도 되겠지요.

와카워터로 수업을 하고 난 다음의 마지막 마무리 내용입니다.

선생님 : 우리가 이걸 조사해봤잖아. 각자가 느낀 점은 뭔지 한번 이야기해볼까? 뭐가 생각났어?

○○○ : 자기 자신의 능력을 키우면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신기해요.

□□□ : 이걸 찾으면서 손가락이 아팠어요.

선생님 : 자료 찾기가 힘들었구나.

□□□ : 네. 선생님 그래서 저 요즘 컴퓨터 배우고 있어요.

(아이들이 조금 소란스럽자)

선생님 : 친구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기로 하자. 이 내용에 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니?

□□□ : 과정이 복잡해요.

◇◇◇ : 저는 와카워터를 만든 이탈리아 건축가가 참 대단하고 본받아야 되겠다.

선생님 : 어떤 점에서?

◇◇◇ : 아프리카 같은 부족한 나라를 도와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저도 채연이처럼 자료를 찾는게 좀 힘들었어요.

선생님 : 자료는 많았는데 자료 편집하는게 좀 힘들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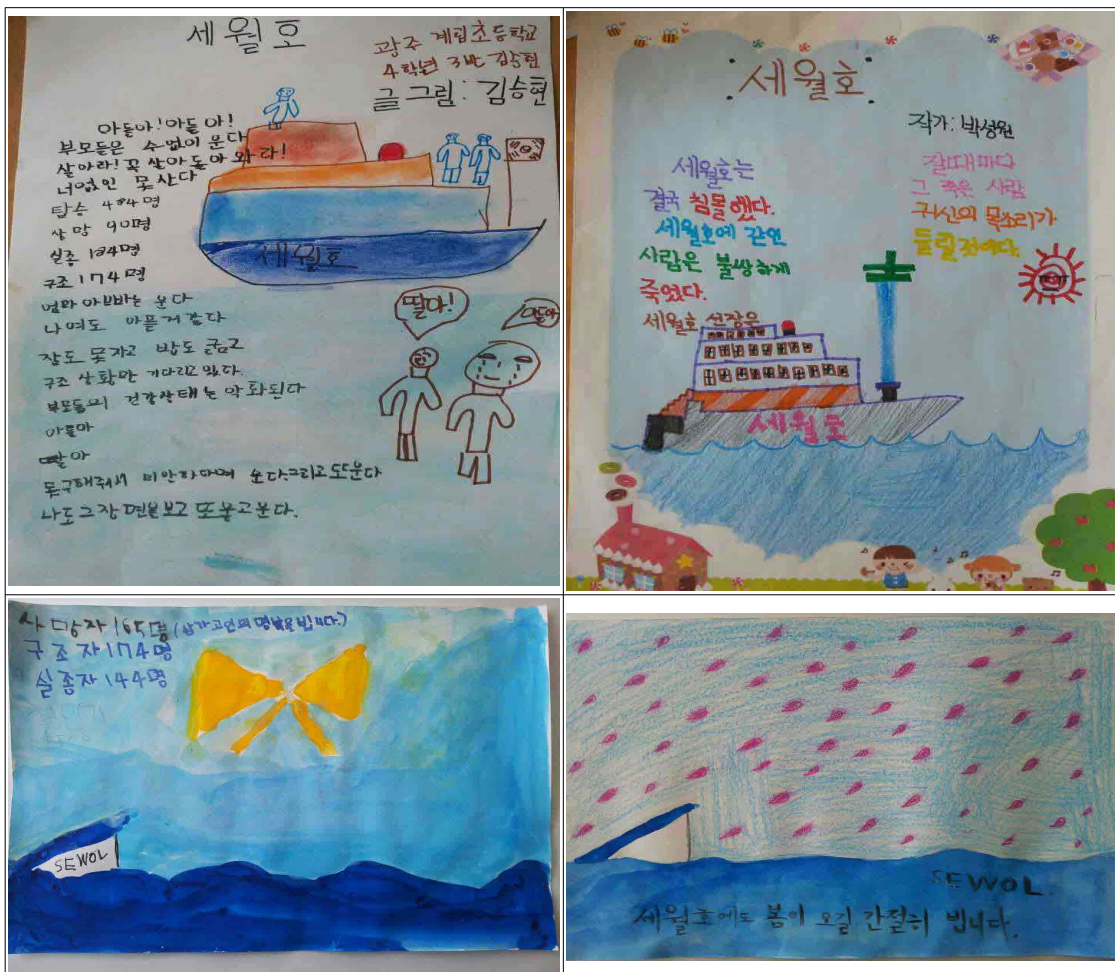
△△△ : 건축가가 신기했어요.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게 신기했어요.

선생님 : 건축가라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도와줄 수 있었어.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다음은 4학년 시각디자인 수업과 국어 편지쓰기와 융합하여 진행한 수업사례입니다. 준비물은 스티로폼 볼, 12색 네임펜, 글루건, 브로치 핀, 니스, 우드락 커터기 등입니다. 스티로폼 볼 반으로 자르기 → 유성펜으로 얼굴을 그리고 색칠하기 → 브로치 핀에 얼굴 붙이기 → 꾸미기 → 니스칠하기 → 활동지에 붙이고 부모님께 편지 쓰기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시화그리기 수업을 하였습니다. 국어과, 도덕과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활동은 수학과-각과 사각형 단원에서 삼각형을 각의 크기에 따라 예각과 둔각으로 분류해 보고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을 이용하여 작품을 제작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STEAM 수업모형을 적용하여 진행한 수업 결과물입니다.



미국 뉴저지의 우드로 윌슨 초등학교는 미국 내에서도 최상위권의 성적을 자랑하는 명문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원래 가난한 이민자 학교였지만 성적우수학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학문을 예술을 바탕으로 교육하는 예술통합커리큘럼을 시작하면서 부터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든 예술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은 수 모든 과목에서 평균 10~20% 이상 학업성적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구 연합회가 세계 37개국의 예술교육 사례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질문교육이 가능한 것은 이러한 통합의 교육, 융합의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술과 국어, 미술과 수학, 미술과 사회, 미술과 과학 미술과 음악, 미술과 일상 등 어떤 과목과도 어울리는 것이므로 다양한 교과에 연결해서 수업을 한다면 그야말로 즐겁게 참여하는 수업이 될 것입니다.